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남해화학, 해남 화원농협에 ‘칼슘유황비료’ 지원

- 이광록 남해화학 대표,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 김유학 농진청 연구관, 서정원 화원농협 조합장은 ‘칼슘유황비료’를 시비한 배추밭의 작황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화원면에 방문
- 화원농협은 올해 처음 남해화학의 지원을 받아 배추밭 70여만평에 칼슘유황비료를 살포
- 화원농협 관계자는 “올해 칼슘유황비료를 뿌린 배추농가 대부분이 작황 상태를 보고 만족해 하고 있다”며 “칼슘유황비료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함
- 김유학 연구관은 “기본적으로 칼슘과 유황이 들어간 토양은 작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다만 너무 과하게 살포하면 해가 될 수 있기에 칼슘유황비료의 살포 기준량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힘
- 김병문 대표는 “품질의 우수성이 확인되는 대로 칼슘유황비료를 살포한 배추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생각”이라고 밝힘
- 이광록 대표는 “고구마 등 다른 작목에도 칼슘

유황비료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며 “칼슘유황비료를 적극 지원해 농가들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 2017.11.20.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농업기계박람회서 기능성 비료 홍보

- 팜한농 비료사업부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분김제 벽골제에서 열린 ‘농업기계박람회’에 참가해 기능성 비료 제품을 선보임
- 측조시비기와 일괄 파종기에 최적화된 용출 제어형 비료 ‘한번에측조’와 ‘롱스타파종상’ 및 관주용비료 ‘에스피드(S-Feed), 질산태 질소 함유 복합비료 ‘성장엔’ 등 기능성 비료 제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음
- ‘한번에측조’는 질소, 인산, 칼리 입자를 100% 특수 코팅 처리해 용출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한 비료
- 작물 생육시기에 맞춰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양 시 한 번만 측조시비하면 더 이상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하며 미분을 완전히 없애 기계처리 시에도 막힘없이 살포 가능
- 한 관람객은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벼 수확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비료대는 증가해 농

가 소득이 줄어든다”며 “이항할 때 한 번만 측조시비하면 수확 때까지 따로 비료를 줄 필요가 없는 ‘한번에측조’가 노동력과 비료대를 아껴주는 효자 제품”이라고 평가

- 허준행 팜한농 비료사업부 영업마케팅담당은 “용출제어형 비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팜한농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 고객의 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여 차별화된 기능성 비료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함

※ 2017.11.14. 영농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18년 엔피코 무기질비료 예약구매 신청안내
 - (주)풍농은 11월 15~28일 동안 충남, 경남, 부산 등 농협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18년 무기질비료 예약구매 신청 관련 홍보 활동을 성황리에 마침
 - 이삭거름생략과 측조시비가 가능한 완효성 비료 일회만290과 완효성 코팅요소함유로 성분 및 측조시비를 개선한 명품300, 명품22를 홍보
 - 또한 토양개량 및 지효성 인산, 미량요소를 다량함유한 용성인비, 기능성 요소분해억제

제, 완효성, 유기물을 함유한 명품유비롱 제품의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행

- 한 관계자는 “농협 지역담당자들의 큰 호응과 농가의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2017.10.31. (주)풍농 자료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회원사 사장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7. 11. 8(수)
- 장 소 : 대치동 한미리
- 참석자 : 각 회원사 사장 및 협회 임직원 등 10여명
- 주요내용
 - 양분총량제 및 EPR 문제 대응방안 논의
 - 협회 주요 활동 및 향후 진행 방향 논의 등

□ 「무기질비료 설명을 위한 통일부 방문」

- 일 시 : 2017. 11. 16(목)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 참석자 : 통일부 비료 지원 담당자 및 협회 임직원
- 주요내용
 - 무기질비료 산업 개요 및 특성 설명
 - 무기질비료 수급 여건 및 지원 효과 설명 등

□ 「회원사 생산능력 변경 현장 확인」

- 일 시 : 2017. 11. 22(수)
- 장 소 : 조비 울산공장
- 참석자 :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10여명
- 주요내용
 - 신축공장 비료 생산량 실측, 생산능력 확인



□ 「원료구입자금 사용 현장 확인」

- 일 시 : 2017. 11. 22(수)~23(목)
- 장 소 : 조비, 팜한농 울산공장, 세기 포항공장
- 참석자 :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15여명
- 주요내용
 - 원료구입자금 사용 실적 확인
 - 원료 저장 상태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18년 비료·사료포장재 분담금 단가산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7. 11. 28(화)
- 장 소 : 교육시설공제회관 9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연구기관 및 관련 협회 임직원 등 15여명
- 주요내용
 - 분담금·지원금 단가 연구용역 진행상황 확인 및 향후 계획 토론 등

□ 「EPR문제와 개선점 국회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7. 11. 29(수)
- 주 관 : 홍문표 국회의원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참석자 : 환경부 EPR 담당 사무관, 홍문표 국회의원 보좌관, 관련 협회 및 업체 임직원 등 50여명
- 주요내용
 - 농업분야 EPR 제도 문제점 설명
 - EPR제도의 개선방안 토론 등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 장성농협 고품질 양파 생산 위해 '칼슘유황비료' 지원

○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실시

- 칼슘유황비료 가격을 장성군과 장성농협이 각각 50%, 30%를 보조
- 농민들은 20%만 자부담하면서 비료를 사용
- 장성농협은 2172만원의 예산을 들여 칼슘유황비료 4000포대를 구입해 양파농가에 전달

○ 현장교육 강화 및 인력 등 지원

- 전문인력을 채용해 농가를 찾아 1대1 상당 현장교육을 실시
- 전매월 양파 재배관련 안내문도 농가에 발송해 필요한 농사정보를 적기에 받도록 하고 있음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고 농작업도 대행
- 박형구 조합장은 “양파가 고소득 작물이긴 하지만 농가 고령화와 재배의 어려움으로 재배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품질 양파 재배기술을 농가에 알려주고 전량 계약재배도 실시해 농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 2017.11.24.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실용화재단, 비료분야 분석능력 국제적 인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인 미국 ERA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 '우수기관'으로 분석능력을 인정받음

- 오권영 분석검정본부장은 “미국 ERA 국제속련도 시험은 농업 및 전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분석기관들이 참여해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며 “재단은 이번 미국 ERA 평가에서 유해폐기물에 함유된 무기성분 10개항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진행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힘

※ 무기성분 - As, Cd, Cu, Fe, Mg, Hg, Mo, Ni, K, Zn

- 오 본부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제 속련도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공신력 있는 분석기관으로서 고객 만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함

※ 2017.11.7. 농축유통신문 인용

□ 농촌진흥청, GAP 농산물 생산농가 참고할 수 있는 책자 발간

- 농촌진흥청은 ‘토양 관리 기술을 이용한 GAP 과수 생산’과 토양 관리 기술을 이용한 GAP 약용작물 생산’을 발간
- 이 책은 올바른 토양 관리, 올바른 비료 사용, 작물종류별 토양 관리 기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등 총 4장으로 구성
- 1장은 토양 관리 필요성, 토양개량법 및 GAP 생산에 적합한 토양 관리 등 설명
- 2장은 올바른 비료 사용의 필요성, 비료 사용량 결정 방법과 기준, 비료사용처방서의 활용 방법 등 소개
- 3장은 과수 및 약용작물의 재배적지, 비료사용 방법 물 관리 방법 설명
- 4장은 GAP 인증 등 실시요령 소개

- 이 책이 보급되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등 영농현장 기술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도 받아 볼 수 있음

※ 2017.10.31. 국립농업과학원 보도자료 인용

□ 가축분퇴비 비료성분 자율표시제 도입 필요

예전의 퇴비는 산야초와 소량의 가축분뇨를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경지에 다량 투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퇴비 자체의 비료함량이 낮아서 양분공급보다는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여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미생물의 활성을 높여 비료성분의 흡수를 돕는 토양개량제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야초 등의 거친 원료보다는 비료 성분이 높은 가축분뇨 등의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의 물리성 개선 효과보다는 농경지의 양분함량이 높이는 데 일정한 부분을 일조하게 되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 시설재배지(9만 3,500 ha)의 경우 약 55%가 염류집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약 48%가 유기물함량이 적정한 토양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다량의 비료성분을 지닌 퇴비가 비료성분 함량의 고려 없이 토양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축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축분퇴비의 경우 비료 성분함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료사용처방시

스텝(흙토람)에서 농경지에 퇴비의 적절한 투입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양의 염류농도의 조절이 가능하고 작물의 염류장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시판중인 퇴비 280개에 대하여 1톤의 기준으로 평균함량이 질소 17kg, 인산 16kg, 칼리 12kg에 해당하는 양이 비료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퇴비의 비료성분의 함량을 모르는 경우에, 퇴비의 비료성분 평균함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 비료량보다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각각 28kg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비료성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축분을 많이 사용하는 가축분퇴비의 비료성분의 표시가 꼭 필요하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가축분퇴비 사용으로 인한 농경지의 양분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나 비료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료 성분 표시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퇴비협회 차원에서 비료 성분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퇴비등급에 따른 비료성분 정보를 제공한다. 캐나다에서는 퇴비품질 관리협회에서 질소, 인산, 칼리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영국에서도 총 질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마다 다양하게 운용되는데, 오레곤주에서는 퇴비를 비료(fertilizer)로 등록시 질소, 유효인산, 수용성 칼리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비료 사용을 위하여 토양을 분석한 후에 전문기관에서 비료투입량을 계산하여 농경지에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W

국내에서도 농경지에 작물이 생육하기에 좋은 토양의 양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축분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퇴비 생산자협회 차원에서 비료성분 함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분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비 생산업체의 생산 시스템, 경영 조건 등을 고려하고, 가축분퇴비 등 퇴비에 성분보증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적 토양 분석치에 근거한 농자재의 효율적 사용이 염류집적을 예방하고, 토양을 건전하게 관리하며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축분퇴비의 성분 표시제 도입은 모든 부숙유기질비료의 비료성분 정보로 귀결되어 농경지의 비료사용량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길이 될 것이다.

※ 2017.9.16. 김명숙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박사 농업인신문 기고글 인용

4 농정 이슈

□ 농촌진흥청, 가뭄에도 잘 자라는 벼 육종소재 개발

- 농진청은 봄철 가뭄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가뭄에 강한 벼 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소재를 개발
- 또한 가뭄 저항성 계통의 조기선발 및 교배와 육종을 통한 신품종 개발 기반도

마련

- 이 옥중소재는 모내기 후 생육 초기에 가뭄이 들더라도 벼의 원줄기 분화가 안정적인 것이 특징
- 농진청 논이용작물과 오명규 과장은 “현재 고품질 벼 품종 ‘새일미’와 ‘삼광’ 등을 기반으로 한 가뭄 저항성 옥중소재 연구도 진행 중이다”라며 “봄철 심각한 가뭄이나 농업용수 부족에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뭄 저항성 벼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강조

※ 2017.11.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인용

□ '17년 쌀·밭 등 직접지불금 1조468억원 지급

- 농식품부는 '17년도 쌀 고정직불금,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6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은 1조 468억원으로 자격요건이 검증된 1,114천명의 계좌에 입금, 1인당 94만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 임
- 지역별로는 전남 2,227억원,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으로 나타남
- 농식품부 관계자는 '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11월초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불제 운영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18년 1월말까지 쌀

가격을 반영하여 2월중에 지급할 예정임

※ 2017.11.6.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 '벼 직파재배' 농가소득 5천만원 앞당긴다

○ 농협, 벼 직파재배에 확산에 온힘

-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영농일손 부족, FTA 체결과 농산물 수입 개방, 국민 식생활 서구화 등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등으로 생산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농협은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육묘와 이앙을 동시에 해결해 생산비용과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벼 직파재배 신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 직파재배는 이앙재배와 비교해 ha당 생산비 75만3000원, 노동시간 21.8시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15년 농식품부 곡물조사료자급률제고사업단에 따르면 병충해와 도복에도 강해 수확량에 차이가 없음
- 특히 올해 극심한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직파농법을 활용한 재파종과 생육관리로 수확의 결실을 얻은 사례를 통해 직파재배의 유용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
- 농협은 입지조건과 파종시기 등 유형별(지역별) 직파농업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무이자자금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

※ 2017.11.5. 한국농업신문 보도자료 인용

□ '17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

- '17년 쌀 생산량은 397만 2천톤으로 전년의 419만 7천톤 대비 5.3% 감소
- 재배면적은 경지면적 감소, 정부의 쌀 적



정생산유도 정책에 의한 타 작물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1% 감소한 754,713ha로 나타남

- 10a당 생산량은 모내기 시기의 가뭄과 날씨가 형성되는 시기의 잦은 강수 및 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 영향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527kg으로 나타남
- 도별 생산량은 전남이 82만 7천톤으로 가장 높고 이어 충남 72만 1천톤, 전북 65만 5천톤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7.11.14. 통계청 보도자료 인용

□ 농식품부, '17년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결정

- 농식품부는 '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으로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40kg 포대당 3만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확정
- 11월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11월 28일에 일시에 중간 정산액을 지급받게 되며, 11월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됨
-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12.27일 예정) 이후 연대 실시할 계획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포대당 3만원/40kg을 11월 중에 지급기로 하였으며, 연내 최종 정산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힘
- 농가들이 정부 벼 매입 및 우선지급금 환급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

※ 2017.11.27.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 쌀 적정생산, 품질 고급화부터 시작해야

쌀 등급표시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으로 특·상·보통·등의·미검사로 돼 있는 표시사항이 미검사가 삭제되고 특·상·보통·등의로 표시된다.

다만 미검사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시점은 1년 유예한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도 대형유통업체는 미검사 제품 유통을 전면 금지시킴으로써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롯데 빅마켓은 지난 20일부터 최고 품질의 단일품종 쌀을 판매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최고 등급으로 선별한 완전미와 깨끗하게 씻어나온 무세미 2종류를 선보여 쌀 등급표시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등급표시 강화는 전체 물량의 73%를 차지하는 미검사를 삭제함으로써 등급표시와 완전미 비율을 높여 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수확보다는 고품질 쌀을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적정 생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제에 밥맛을 결정짓는 단백질 함량 표시도 포함시키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산하조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3저(재배면적·질소비료·생산비 줄이기)·3고(고품질 품종확대·완전립비율 늘리기·쌀 소비촉진) 운동도 이번 등급표시 강화와 일맥상통한다. 이 운동은 쌀 적정생산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등급표시 강화로 쌀 농가들의 고품질 쌀 생산의지도 보다 더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다수확 품종은 과감히 버리고 품질 위주의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내달 11일 농업인의 날에 펼쳐지는 ‘전국 쌀 대축제’는 앞으로 강화되는 쌀 등급표시에 맞춰 쌀 생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 축제와 함께 펼쳐지는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는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며 전국 9개도에서 각각 5점씩의 쌀을 출품해 자웅을 겨룬다.

특히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해 완전립과 싸라기 함유율, 단백질 함유율, 피해립 비율, 식미테스트 등을 거쳐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고품질 쌀을 선발한다. 이번 대회가 쌀 적정생산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 2017.10.25. 한국농업신문 사설 인용

□ 농업의 ‘보존가치’ 정립이 필요하다

직불제 개편 문제와 결부돼서 제기돼왔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최근 헌법 개정안에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면서 농업계 내부에서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좀 우려스러운 흐름이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농업계 내부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마치 모든 의견이 합일치 된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식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급함 때문에 장차 몇

십 년을, 두고 두고 후세들에게 이어질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비농업분야 설득 가능한지 의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논의돼 오던 농업의 ‘공공재’ 생산 기능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며, 선진국들이 정책적으로 논의한 것은 1980년대 후반 UR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이후 1990년대 후반 OECD에서 이를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다기능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됐다. 그런데, 그 논의과정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기능과 ‘환경보전’ 기능이 상호 모순되는 논리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이 용어를 농정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게 됐으며, 간혹 농업의 비농산물 생산 활동과 연계되면서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쇠퇴하게 됐으며, 더욱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용어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public interest)’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로 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에서 사용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도 합의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논의에 대해서는 대립적인 주장이 서로 반

복될 뿐이어서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우리 농업계 내부의 합치된 의견이 있고 이를 활용해서 비농업계의 비판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활용 가능한 개념이겠지만 현실적인 농업계 내부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용어를 농업 분야에서 국민들이나 비농업 분야를 설득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농업의 '공익'에 대한 합의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수행됐던 농업의 다원적 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가치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통해서 정책적 지원을 얻는 것에 초점을 뒀었고, 그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마치 농업생산이나 농가소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공익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경관 및 활력제고, 농촌사회유지 등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적 가치 중에서 농업계에서 주로 강조한 것은 식량안보의 기능이었고, 이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생산활동을 강화하는 논리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촌의 환경, 경관, 문화자원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됐다. 심지어 어느 농민단체 대표는 “70세까지 농약으로 생산한 농산물 먹은 사람들이 아무 탈이 없는데,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이야기까지 거리낌 없이 하는 상황이다. 농촌 자원을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고, 장기적으

로 후세에게 전해줘야 하는 보존가치로는 거의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익적 가치는 그 동안 식량안보 기능의 달성과 이를 근거로 한 농민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돼 왔을 뿐 그 과정에서 파괴되는 농촌의 환경, 경관, 사회,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 논리로 활용된 적이 거의 없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식량안보 기능의 보완적 역할에 머물러왔다.

농업·농촌 자원 '보존'에 초점을

그래서 진정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기 위해서는 농업의 농촌자원 보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농업의 보존적 가치 (Conservational value of agriculture)’를 정립하고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농업지원 정책의 개편이나 헌법 개정안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 애매하고 낡은 ‘공익성’에 관한 논의로는 국민과 비농업계를 설득시키기 어렵다. 혹자는 ‘그래도 여전히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저 생산량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낡은 논리다. 생산량만을 강조하면, 아마도 다양한 형태의 식물공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차제에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국토의 파수꾼으로서의 농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2017.11.14.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농업신문 기고문 인용

5 식량 및 무기질비료 통계

□ 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단위 : \$/톤)

구분	2016년 연평균	2017년	
		9월	10월
암모니아	341	258	275
요소	239	-	299
DAP	353	355	365
염화칼륨	324	315	317
환율 (매매기준율)	1,161.35	1,133.78	1,130.34

※ 관세청 무역통계, KEB하나은행 인용

□ 세계곡물 수급 상황

(단위 : 백만톤)

구분	'16/'17 (추정)	'17/'18(전망)	
		10월	11월
생산량	2606	2554	2556
총공급량	3232	3211	3211
교역량	431	410	412
총소비량	2576	2572	2573
기말재고량	655	639	638

※ WASDE, 2017.11.9. 인용

<세계 쌀 공급량과 소비량>

(단위 : 백만톤)

구분	'16/'17 (추정)	'17/'18(전망)	
		10월	11월
기초재고량	133	138	138
생산량	487	484	481
수입량	41	43	43
국내총소비량	481	480	480
수출량	45	44	45
기말재고량	138	142	139

※ WASDE, 2017.11.9. 인용

□ 세계 식량가격지수

구분	'16 연평균	'17		
		8월	9월	10월
식량가격지수	161.5	177	179	176
육류	156.2	174	174	172
유제품	153.8	220	224	215
곡물	146.9	153	152	153
유지류	163.8	164	172	170
설탕	256.0	204	204	203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7년 10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월(178.6포인트) 대비 1.3% 하락한 176.4포인트를 기록, '17.7월 이후 소폭 등락을 보이며 안정세를 지속

- 식량가격지수 : ('17.7월)179.0→(8월)177.2→(9월)178.6→(10월)176.4

○ 곡물 가격이 소폭 상승한 반면에, 최근 상승세였던 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등 다른 품목군 가격은 일제히 하락

※ 2017.11.7.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6 무기질 비료 Q&A 및 홍보

□ 유기농 농작물은 품질이 좋은가?

기농 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60% 이상 포함하고 있고 항생물질 잔여물, 첨가제, 보존제, 색소나 첨가물, 심장병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성인보다 미숙한 면역계를 지닌 어린이에게 좋다고 합니다. 일반 식품보다 가격이 높은 유기농 식품



을 고르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주부들은 “농약과 같이 신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들이 적게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식품이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고 환경에 해를 덜 입힌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콜만이 지은 “내추럴리 데인저러스” 책에 따르면 합성 무기질비료를 사용해 키운 농산물보다 짙을 썩힌 퇴비를 사용해 키운 유기농 식품이 실제로 우리 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식품 과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비료를 쓸 때 동물의 배설물에 든 치명적인 세균들이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농약 잔류물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은 여태껏 한 명도 보고된 적이 없지만 음식을 통한 세균 감염으로 죽은 사람은 질병통제 센터에 매년 수백 명씩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콜라이 O157:H7” 같이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치명적인 대장균은 매년 사망자 250명과 환자 2만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자연 식품을 먹는 사람들은 기존 방식으로 키운 식품을 먹는 사람보다 이러한 세균의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8배나 높고, 유기농 식품은 아플라톡신 같은 자연 독소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에서 비롯되는 유기농 식품의 권위 때문에 지금까지 질병통제센터는 물론 그 어떤 정치집단들도 유기농 식품에 존재하는 위험성을 감히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유기농 식품이 전체 식품

시장에서 일부만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유기농 면적은 영국, 독일, 프랑스는 3% 이상이지만 미국, 일본, 한국은 1% 이하이며, 전 세계 평균은 0.9%임. 한국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합쳐서 약 9%이고 순수 유기농은 1%임)

유기농으로 재배된 야채는 우리 몸에 위협할 수 있는데 샐러드에 많이 넣어 먹는 알팔파 싹은 그 씨 속에 오염된 살모넬라와 대장균 때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식품이라도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천연식품에도 천연 살충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기농 기술을 통한 식량 재배가 거듭될수록 천연 발암물질의 함유량도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유기농산물이 영양학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천연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농산물 선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비료 Q&A」 (한국비료협회, 2014, pp. 92~93) 인용

7 이달의 주요 인사

□ 농림축산식품부 11월 인사

○ 11월 3일자 인사 현황

- 실장급 승진 차관보 김종훈 (전 식량정책관)
- 국장급 전보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김인중 (전 창조농식품정책관)

○ 11월 24일자 전보 현황

- 국장급 승진 박수진 창조농식품정책관
- ※ 농기자재정책팀 담당 국장